

“아시아 도자문화 한 눈에”... ‘도자문화관’ 12월 개관

국립광주박물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도자문화관 공정률 93% 상설전시실·편의시설 등 신장동 유적 등 연구 추진 문화 취약지서 특별전시 전 연령층 대상 교육 마련

개관 47주년을 맞은 국립광주박물관은 올해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숙원사업이었던 도자문화관 건립공사를 오는 12월 마무리해 대중에 공개한다. 또 △광주 신장동 유적 등 중요 역사 조사연구 추진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전시 개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과 문화행사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교두보 ‘도자문화관’ 총사업비 301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도자문화관 건립 공사는 올해 12월 완공돼 개관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 본관 옆 부지에 들어선 도자문화관의 건립공사 공정률은 현재 93%로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자문화관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에는 3개의 상설전시실(한국도자문화실, 신안해저문화유산실, 신기술융합콘텐츠실)과 도자기 전문 수장고가 마련되고 2층에는 카페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한국도자문화실은 광주·전남의 도자기를 중심으로 국내외는 물론 아시아 도자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강진 고려 청자, 광주 북구 충효동 분청사기 등 지역 출토

◀ 청자 참외모양 병(국보 제94호).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도자 유산을 중심으로 제작, 유통,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자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상설전시실에 자리할 신안해저문화유산은 14세기 동아시아 해상교류를 보여주는 희소한 자료로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명품 도자 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도자문화관은 국내, 해외의 전문가와 관람객들의 방문을 유도해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교두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도자문화의 전통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전통적인 도자 유산의 제작기술과 형태, 색감 등을 주제로 현대 작가와의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전남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와 전남 세라믹산업 육성 등 지역 주요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기술융합콘텐츠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도자 유산과 광주·전남의 전통 문화유산을 주제로 만들고 해상도의 몰입형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2층에는 문화상품점과 카페가 들어서며 방문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공간으로 조성된다.

●중요 지역사 조사연구 추진 ‘박차’

2022년에 시작한 ‘광주 신장동 유적 문화경관 복원’ 사업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호남고고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 선사·고대 한반도의 식량’ 연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된다. 올해는 식량의 소비에 대해 연구하고 8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뒤 결과를 내년 지역문화실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안해저문화유산은 무시유도기, 흑유자, 백자에 이어 올해 청자 연구를 진행한다. 신안해저 출수품 중 청자는 1만5000여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원나라의 대표 도자인 용천청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 가장 많은 수량이 보관되어 더욱 연구성과가 주목된다.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2022-2026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박동춘 기증 초의선사 유묵 번역사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세 번째 결과물로 발간할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간찰편’은 전문가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의선사 유묵 기증품은 조선 후기 전남 지역의 차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모두를 위한 문화경험 제공

2025년 1월 1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하며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준비한 순회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는 12월 17일 개막해 내년 3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개최한 특별전시의 지역순회전으로 국보인 청자 참외모양 병 등 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 100여점을 선보인다.

또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14층 128회의 맞춤형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 및 학교 단체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 감상 활동 중심으로 개편된다. 하반기부터는 중학생 대상 교육인 ‘스쿨인뮤지엄’을 신설해 청소년들과 문화유산의 만남을 본격 추진한다. 초·중·고·대학생 대상 교육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고려청자 몽타주’는 기존 10회에서 올해 20회로 늘려 운영한다. 광주·전남 지역 교사 대상 교육 ‘뮤지엄 토크’와 ‘박물관 활용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는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의 연계로 통해 지역을 선도하는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문화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광주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 다양성을 반영한 주제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가족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끌어낸 어린이박물관은 올해도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 ‘부러워라 문화유산 더하기+’와 미션 활동 ‘나의 짝꿍, 문화유산 뽑기’ 등을 상시 운영한다. 문화행사로는 연간 14층·39회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다문화 가족 초청, 국립민속국악원 협업 등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개최하며 오는 12월에는 도자문화관 개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관을 약회를 선보인다.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점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은 아시아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친화적 전시와 교육, 행사를 진행해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한편,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감동의 하모니 선사할 생활예술 음악인 모이세요”

ACC,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바이올린·첼로 등 13개 분야 50명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에 따르면 ‘2025 ACC 시민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모집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시민오케스트라는 150명 규모로 운영되며 ACC재단은 기존 단원과 함께 할 신규 단원 50명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

이다. 모집 대상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13개 분야로, 서류 심사 후 실기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지원 자격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가 가능하고, 연습과 공연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다.

선발된 ‘2025 ACC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편 강사의 지도를 거쳐 오는 10월 ACC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단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숙 ACC재단 사장은 “올해도 많은 생활예술 음악인이 ‘ACC 시민오케스트라’를 통해 소중한 연주 경험을 쌓고, 관객들과 감동을 나누길 기대한다”며 “ACC재단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시작한 ‘ACC 시민 오케스트라’는 지역 생활예술 음악인들이 ACC에서 연주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민 참여 공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2차에 걸친 공연 무대에서 150명의 단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1000여명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박찬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It lists multiple real estate auctions with details like '2024타경 71610' and '2024타경 71856'.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It lists auctions like '2024타경 73173' and '2024타경 72644'.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설계와 다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인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③ 입찰보증금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해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2025. 2. 1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서